

**대화(=대화의 형식)(↔독백):** (작품 내에서) 화자가 두 명 이상이면 대화, 한 명이면 독백

→ 작품 내에서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를 세자

<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>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<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>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 
 <2016\_9A, 탄궁가>

이 상황에서 두 명(한 명은 의인화 된 대상이지만 어쨌든 '화자'임)의 화자를 확인했음. 그러므로 이 상황은 '대화'임

(2014\_9A, 38) **대화의 형식**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.

(2016\_9A, 43) 의인화된 대상과의 **대화**가 나타나 있다.

(2019\_9, 16) 특정 대상과 **대화하는 방식**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.

**말을 건네는 방식(=대화체):** 대화든, 독백이든 그냥 말 걸면 됨

→ (특정 대상이 대답을 안해도) 특정 대상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지 확인

紅塵(홍진)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(生涯) 엇더흐고,  
 넷 사름 風流(풍류)를 미출가 못 미출가.  
 天地間(천지간) 男子(남자) 몸이 날 만흔 이 하건마논,  
 山林(산림)에 못쳐 이셔 至樂(지락)을 맛볼 것가.  
 <2014\_11A, 상춘곡>

청자를 지칭함으로써 말을 걸고 있음.

(2014\_11A, 40) 화자가 청자에게 **말을 건네는 방식**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군.

(2015\_9A, 31) **말을 건네는 방식**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.

(2016\_9A, 34) '전하여 주렴'을 보면 작품 내에 청자를 설정하여 **말을 건네는 형식이 활용된 것**을 알 수 있다.

**독백적 어조(=독백체):** 혼잣말 하는 말투(대화 상황에서는 절대 독백적 어조로 말 안함. 찌따임?)

→ 화자가 한 명 인 것을 확인 + 혼잣말 확인

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/어디로 갔나./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./넙치지미 맵싸한 냄새가/  
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/어디로 갔나./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./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/  
 되돌아온다./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./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./  
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/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./  
 한 뼉 두 뼉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./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./나는 풀이 죽는다./  
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./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./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,  
 <2011\_6, 김춘수, 「강우(降雨)」>

한 명의 화자가 혼잣말을 하고 있다 = 독백적 어조

(2014\_11A, 31) 영탄과 **독백적 어조**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.

(2014\_11A, 41)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반복하여 **독백적 어조**에 변화를 준다.

(2015\_11B, 44)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설움을 **독백조**로 토로하고 있다.